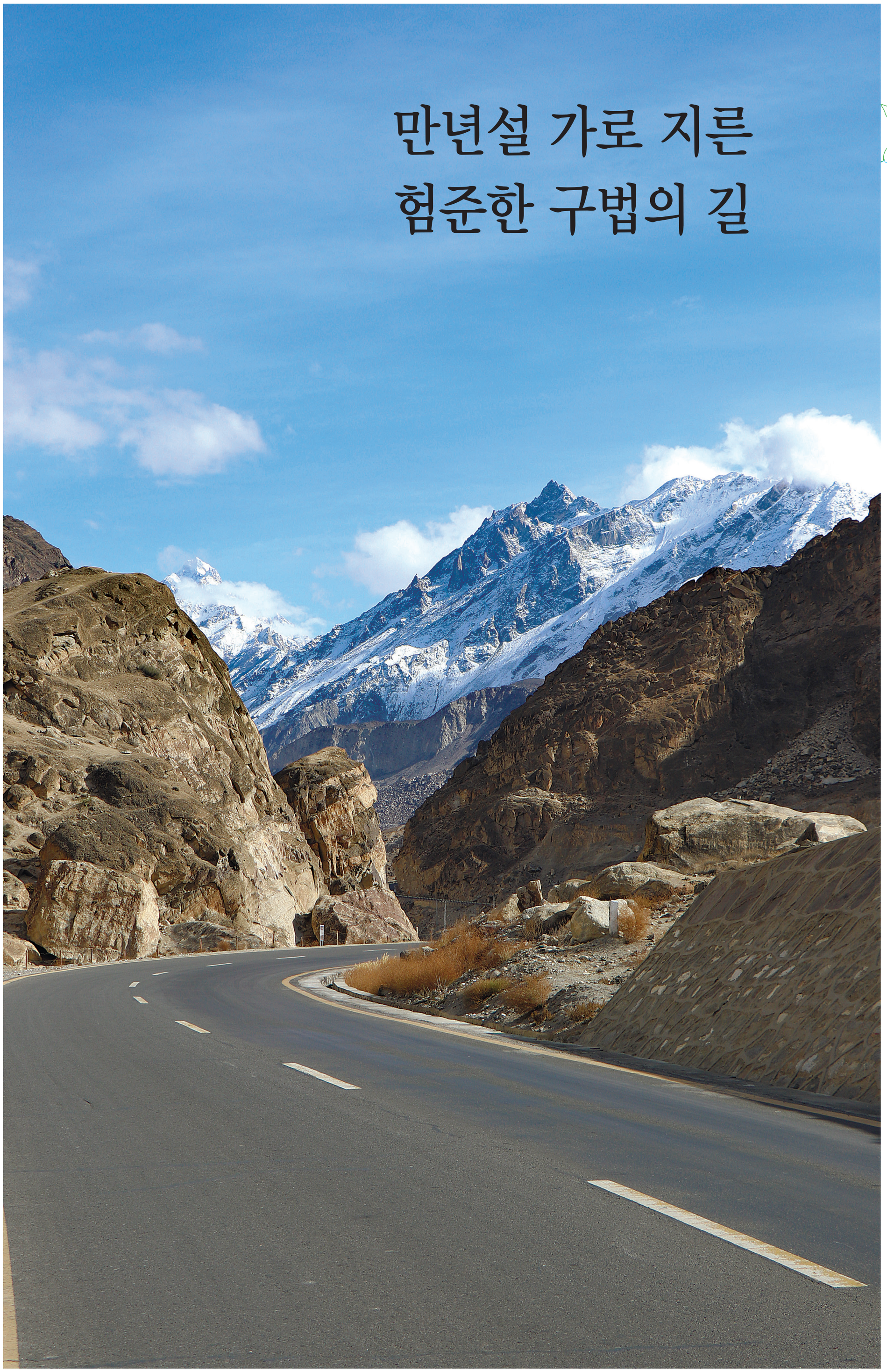
만년설 가로 지른 험준한 구법의 길



길기트에서 훈자로 향하는 카라코람 하이웨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까지 잇는 이 도로는 그 길이가 1200㎞에 달한다. 길기트·훈자에서는 이 길을 이동하며 수많은 설산과 에메랄드빛 강줄기를 감상할 수 있다.

파키스탄 지도



특별기획

동서 문명 교차로 파키스탄을 가다

① 간다라문명 발상지, 페샤와르

② 아소카왕의 고향, 탁실라

③ 목숨 건 전법 여정, 길기트

대한불교조계종은 파키스탄 정부 초청으로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파키스탄 내 불교 유적을 순례했다. 특집기획 마지막 순서는 옛 실크로드가 남아있는 길기트·훈자다.

파키스탄 북부에 자리한 길기트·훈자는 만년설산에 둘러싸인 요새 같은 마을이다. 북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와한, 북동쪽으로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남동쪽으로 인도와 마찰을 빚는 잠무 카슈미르와 맞닿는다. 특히 이곳은 카라코람과 히말라야, 힌두쿠시 3개의 산맥이 만나는 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중 하나인 K2와 낭가파르바트 등이 있다. 해발 7000~8000m급 산이 셀 수도 없이 많은 곳, 사람의 발길이 드문 천혜의 자연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파키스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새벽 4시, 호텔 모닝콜이 선잠을 깨운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어가 무슨 뜻인지 알 필요도, 대답할 이유도 없었지만 반사적으로 "OK"를 외치며 눈을 비볐다. 출장 3일차, 파키스탄에서의 숙박이 두 번째인 11월 18일. 전날 라호르박물관에서 고행상을 친견하고 버스로 5시간을 달려 밤늦게 도착한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선 몇 시간 눈도 못 붙인 채 떠날 채비를 했다. 파키스탄에 오기 전 유일하게 다큐멘터리로 본 '훈자'로 떠나기 위해서다.

훈자는 에콰도르 빌카밤바, 불가리아 스몰랸, 러시아 코카서스와 함께 세계적인 장수마을로 유명하다. 1984년 훈자 출신 160세의 노인 사이드 압둘 모부트가 영국 런던공항에서 심사를 받으면서부터다. 당시 훈자는 평균나이가 120세라고 알려져 세간의 화제가 됐다. 물론 교통이 발달하고 외부와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더 이상 장수마을이 아니다. 그리고 그해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가 개봉한다. 1982년부터 월간 만화잡지에 연재해온 이 작품에 등장하는 바람계곡이 바로 훈자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옛 실크로드와 KKH

이슬라마바드에서 훈자로 가는 방법은 육로와 국내선 항공 두 가지다. 거리는 600㎞ 남짓밖에 안 되지만 차로 이동하면 20시간은 족히 걸리는 대장정이 펼쳐진다. 순례단은 원활한 일정 소화를 위해 날개에 프로펠러가 달린 40인승 작은 비행기를 택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 〈13〉

B4 책세상
법상 스님 〈사찰에서 만나는 벽화〉

B5 문화
김지선 초대전 '부처님오신날'

B6 학술
주목! 학술서 – 김성철의 〈역설과 중관논리〉